

민 정 실	음 진 천	<h1>BUDDHANARA</h1>	FAITH WISDOM ACTION
----------------------	----------------------	---------------------	------------------------------------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첫째주 일요일 11시 초하루 기도 법회
 둘째주 일요일 11시 인등 기도 법회
 셋째주 토요일 11시 세알 법회 (설날 법회)
 넷째주 일요일 11시 예불문 해설 II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

Every Saturday 10am. (매주 토요일 10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달의 법구경: - 인내는 가장 큰 희생이고
 열반은 가장 높은 선(善) 이라네.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 말씀이
 남을 해치는 사람은 수행자가 아니고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고행자가 아니라네.

Forbearance is the highest sacrifice. NIRVANA is the highest good. This says the Buddhas who are awake. If a man hurts another, he is not a hermit; if he offends another, he is not an ascetic.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7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총무원장 지관스님 '7 대 전략과제 · 20 개 핵심사업 발표' 신년 회견

불기 2551 년을 맞는 대한불교 조계종은 '수행과 전법'을 기조로, 종풍 진작과 수행승가 진흥, 대중원용살림 회복, 전법과 복지진흥에 중점을 두는 한해가 될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지난 23 일 한국불교 역사 문화 기념관 4 층 회의실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신년인사말에서 “무유정법의 금강 반야 종풍을 간단없이 1700 여 년간 전승해온 조계종단이 수행승가진흥을 그 제일의 지취로 삼는 뜻은 한국의 출가수행승가는 세계불교사에 전승되고 있는 더없는 인류의 공동체 유산이기 때문”이라며 “사부대중이 평생 계정혜 삼학으로 수행하고 경율론 삼장의 바다에서 공부하여, 대혜의 공덕을 성취할 수 있도록 종풍진작과 수행승가 진흥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이와 함께 제 32 대 조계종의 비전을 △종풍진작과 수행승가 진흥 △대중원용살림회복 △전법과 복지진흥 △사회와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수행종가 등 4 가지로 구분하며 이에 따른 7 대 전략과제와 20 대 핵심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총무원장 지관스님이 밝힌 7 대 전략과제의 첫 번째는 종풍진작사업으로 ‘사부대중의 결계로 포살 자자 정례화’ ‘종장회의 설치와 삼장해제 살림 정례화’ ‘봉암사 결사 60 주년 기념사업시행’ ‘수행진작을 위한 국가법령제도 개선’ 등이다. 특히 지관스님은 “봉암사 결사 60 주년을 맞아 문경 회양산 봉암사의 눈 푸른 남자정신을 환기하는 60 주년 법회와 학술세미나를 기획하고 있고, 각종 법령의 규제로 수행환경에 침해를 받는 법령을 정리해 종교 본연의 활동을 꽃피워가는 방향으로 개선할 뜻”을 강조했다.

두 번째 전략과제는 대중원용살림회복으로 ‘득도이후 대중승가결계 및 소임의무화 제도 추진’ ‘출가대중 노후복지 본산위주 제도화’ ‘종무행정 교구이양’ ‘종단 자정 기능 향상 방안 추진’ 등이 추진할 핵심과제이다. 세 번째는 전법과 복지진흥으로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포교’라는 용어가 일제잔재가 남아있는 있으니 전법으로 정정한다”고 설명하며 ‘어린이 청소년 포교 제도 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 ‘저출산 고령화 불교 대응 방안 추진’ ‘신도시 거점 전법도량 건립 추진’ ‘한국불교전통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 등을 밝혔다. 네 번째는 수행종풍의 사회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간화선 대중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조계사 국제간화선 센터 건립’을 금년 내 달성기로 했다. 다섯째는 한국불교 세계화로 3 년 계획 총 30 억 예산이 투입될 ‘한국전통사상서 영문번역사업’과 ‘재외한민족 거주지역 전법도량 건립’ ‘스리랑카복지타운 준공 및 남방비구니 승가복원 지원’을 꼽았다. 여섯째 전략사업은 신계사 복원불사 완공 및 후속사업을 진행하는 남북불교협력사업이다. 일곱째는 한국불교중흥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오는 3 월 26 일 ‘불교중앙박물관 개관 및 특별전시회’를 추진하는 한편 기존 불교신문과 중앙신도회 등이 입주해 있는 건물을 지상 10 층 지하 3 층의 전법회관으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인도 후블리 불가촉민, 100 여명 불교로 개종

인도 불가촉민들의 불교개종이 이어지고 있다. 인도 언론 네윈드프레스는 “신분차별 철폐운동을 주도하며 불교도로 개종했던 달릿 출신 지도자 B R 암베드카르 박사의 사망 50 주기를 맞아 100 여명의 불가촉민들이 다른 하층 계급 사람들과 함께 지난 12 월 중순경 인도 카르나타카주(州) 북서부에 있는 후블리다르와르시에서 불교로 개종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 언론에 따르면 100 여명의 후블리시 불가촉민 외에도 아힌다 지도자인 마하데바파 박사를 비롯해 비자푸르 국제불교청년회 소속 주요 임원들과 이웃지역에 사는 불가촉민들도 이번 행사에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행사의 동기가 된 고(故)암베드카르(1891~1956) 박사는 인도 불가촉민들의 해방자이자 현대 인도불교의 중흥자로 칭송받고 있는 인물로 인도 카스트제도의 최하층민인 불가촉천민으로 태어나 인도의 법무장관과 노동장관을 지낸 바 있다. 간디가 인도사회를 지탱하는 힘으로 카스트 제도를 지칭했다면, 암베드카르는 신분제의 완전철폐를 주장하며 불가촉천민의 의회진출과 차별근절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한편 인도 및 해외 언론들은 올해 들어서 10 만 명

이상의 불가촉민들이 불교로 종교를 개종한 것으로 전했다.

신심(信心)

지혜롭고 성스런 반야의 길, 불교

信爲道元功德母 長養一切諸善法

斷除疑網出愛流 開示涅槃無上道

믿음은 도의 근원이며 공덕의 어머니다. 믿음은 모든 훌륭한 일을 잘 길러내며 믿음은 의혹의 그물을 끊고 애착의 물결에서 벗어나게 하며 믿음은 열반이라는 최상의 길을 열어 보인다. - 화엄경 -

불교가 아무리 위대한 종교이며 차원이 높은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종교임에는 틀림이 없다. 종교라면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믿는 마음, 즉 신심(信心)이 우선이다. 그러므로 불교에서 가장 차원이 높은 경전으로 알려져 있는 대경(大經), 즉 <화엄경(華嚴經)> 현수품에 위와 같은 유명한 구절이 있다. 믿음은 인생을 영위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유익하고 의미 있고 바른 길의 근원이다. 만약 믿음이 없으면 인생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짐으로 세상을 제대로 살아 갈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 잘 길러내듯이 일체 공덕을 탄생시키고 길러내는 어머니와 같다.

또한 모든 좋은 일이란 좋은 일은 모두 이 믿음이라는 것으로부터 생긴다. 자비를 베풀어서 세상을 구제하는 일도, 그리고 지혜로써 어리석은 사람들의 마음을 환하게 열어주는 일도 또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바탕이 되어서 가능한 것이다. 어디 그 뿐인가. 세상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반드시 그 나름의 믿음이 이게 마련이다. 나아가서 보다 높은 차원의 믿음은 사람들의 번뇌와 망상과 일체 탐욕과 애착들을 모두 제거하는 역할도 한다. 그래서 지혜롭고 성스런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그것을 열반의 길이라고도 하고 성불의 길이라고도 하고 반야의 길이라고도 한다. 그러면 무엇을

믿는가. 대승불교에서 믿음을 거론할 때는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믿음의 대상으로 네 가지를 제시한다. 진여(眞如)와 불(佛), 법(法), 승(僧)이다. 삼보(三寶)는 본래 불교에서 신앙의 대상이며 귀의의 대상으로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진여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다. 만약 진여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빠지면 불교를 온전하게 믿는다고 할 수 없다. 진여란 참되고 한결같은 실제(實際)를 말한다. 실제란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절대현재의 이 사실이다. 원시불교, 또는 소승불교에서는 늘 무아(無我)를 지상에서의 최고의 진리라고 말하지만 대승적 관점에서는 존재의 실상을 무아나 연기로만 보지 않고 이 순간 이렇게 역역하게 보고 듣고 하면서 존재하고 있는 이 사실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역역하게 존재하고 있는 이것이 진여며 진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다. 모든 존재의

원점(原點)을 잘못 생각하면 공(空)이나 무(無)나 무아로 보기 쉬우나 실은 이렇게 글을 쓰고 글을 읽고 이런 주장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그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것이 영원불변의 진여며 진아며 마음이며 불성이며 법성이며 자성이다. 불교에서 일체가 연기의 원리로 존재하므로 연기는 곧 공이며 공은 곧 연기며 무아며 중도라고 주장하는 한 입장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부족한 안목이다. 모든 존재의 원점은 공이 아니라 진여며 자성이며 불성이다. 불교에서의 믿음은 삼보와 함께 이 진여를 이해하고 믿어야 한다. 만약 이 진여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없으면 그는 불교의 생명을 잃은 것이며 자신의 생명마저 잃은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불법승 삼보와 함께 반드시 진여의 존재를 이해하고 믿고 나아가서 느끼고 깨달아야 한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보람과 의미는 지금 바로 여기 이렇게 확연하게 존재고 있음을 이해하고 믿지 않으면 그야말로 허무요, 뜬 구름이요, 물거품이요, 저녁연기다.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이 네 가지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神에서 인간으로

2000 여년을 유일신(唯一神)에 의해 희비애락이 점철된 서양종교들이 종교를 ‘신과 인간과의 관계’라고 정의내린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그들이 동양과 만나는 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그들은 신의 역할이 배제된 상태에서 종교행위가 가능한 종교, 불교를 만난 것이다. 그리고 ‘종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하는 그들의 고민이 다시 시작됐다. 이 고민의 결론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종교의 중심에 반드시 신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서양종교와 비교할 때, 불교는 신과 전혀 관련이 없는 종교로 생각하기 쉽다. 물론 교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혀 무관하다. 그렇지만 불교가 신을 숭배하는 종교와의 긴장관계에서 자신의 특색을 키워 온 종교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다른 관점에서 불교의 특색을 발견하게 된다. 불교가 다른 종교와의 긴장관계에서 성장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망각하게 된 이유는 불교가 동아시아 국가들을 독점하는 종교로 자리매김하면서부터이다. 반면 인도불교사에서 불교는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다른 종교와 사상, 특히 다신교적 성격을 띤 바라문교도들과의 긴장관계에 놓인 상황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불교는 신을 숭배하는 종교의 교의와 비교할 때 그 특색이 가장 잘 드러나는 종교다.

인도종교사에서 불교의

특색은 종교행위의 중심축을 신에서 인간으로 옮기는데 성공한 최초의 종교라는 점이다. 인도종교문화의 밑거름을 만든 종교는 바라문교이다. 이 바라문교는 자연 현상을 인격화한 다신교적 성격을 띠고, 신들에 대한 숭배와 제사를 통해 내려지는 신들의 은총을 기원하는 신 중심의 종교이다. 하지만 불교가 출현할 무렵인 기원전 5~6 세기 경 바라문교와는 달리 새로운 수행방법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신흥종교사상들이 등장하고, 불교도 이들 신흥종교의 하나로 출현한다. 다른 인도종교들과는 달리, 불교는 인간이 직면한 고통을 신이나 우주와 같은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인간 내부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인간탐구의 길을 열어 보인다는 점에서 그 특색이 있다.

이러한 불교 가르침의

핵심은 사성제(四聖諦)와 팔정도(八正道)이다. 고통,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여덟 가지 길을 제시하는 가르침은 불교가 어떤 종교이며, 불교의 가르침이 다른 종교와 어떻게 차별화되는가를 보여준다. 이 사성제의 가르침의 중심에 인간이 있다. 바꾸어 말하면, 고통을 만드는 것도 고통을 소멸시키는 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라는 인간의 성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따라서 초기불전에서는 신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쳐 행운을 기원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자기 자신을 찾는 일’임을 거듭 강조한다.

장로의 이름에 합당한 사람

부처님이 왕사성 죽림정사에 계실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설법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장로비구가 발을 뺀고 졸고 있었다. 이와는 달리 나이가 겨우 8 살인 수마나 사미는 부처님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서 가부좌를 하고 앉아 생각을 한곳에 모아 정진하고 있었다. 부처님은 다리를 뺀고 앉아 졸고 있는 장로비구와 단정히 앉아 생각을 한곳에 모으는 사미를 보고 이렇게 말씀했다.

“수염과 머리를 깎았다고 해서 그를 장로라고 할 수 없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행이 따르지 않으면 어리석은 것이다. 네 가지 진리를 깨닫고 어떤 생명도 해치지 않으며, 더럽고 나쁜 행을 버려야 그를 진정으로 장로라 할 것이다. 내가 말하는 이른바 장로란 반드시 남보다 먼저 집을 떠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착한 업을 닦고 바른 행동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모든 감각기관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장로의 이름에 합당하다. 그는 바른 법을 분별하여 행동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다시 비구들에게 졸고 있는 장로비구와 생각을 한곳에 모으고 있는 사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장로비구는 지난 500 생 동안 죽 뱀으로 살았다. 만일 지금 목숨을 마치면 다시 뱀으로 태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삼보에 대해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는 몸이 무너진 뒤에 반드시 뱀으로 태어나느니라. 그러나 이 사미는 이레 뒤에 네 가지 신통(四神通)과 네 가지 진리를 얻고(四聖諦), 네 가지 선정(四禪定)에서 자재를 얻고 네 가지 끊기(四意斷)를 잘 닦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미는 여래와 그 가르침과 가르침을 따르는 대중에 대해 공경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언제나 삼보를 공경하며 열심히 수행하도록 하라.”

〈중일아함경〉 21 권 수타품(須陀品) 제 2 경

서울의 한 채용정보업체가 직장인 2500 여 명을 대상으로 ‘최고의 직장상사’는 어떤 사람인가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가 매우 흥미롭다. 직장인들이 최고로 치는 직장상사 1 위는 ‘악독해도 리더십과 일처리 능력이 뛰어난 상사’(43.4%), 2 위는 ‘부하를 믿고 일을 맡겨주는 상사’(24.2%), 3 위는 ‘윗사람 눈치 안 살피고 소신껏 일하는 상사’(15.5%), 4 위는 ‘형 같이 잘 챙겨주는 상사’(10.3%) 순이었다. 또 ‘직장상사에게 고마움을 느낄 때’를 질문하자 39%가 ‘업무 수행시 실적이나 능력을 인정해 주고 보상해 줄 때’를 꼽았다. 이어서 ‘공은 부하에게 돌리고 책임질 일은 자신의 몫으로 돌릴 때’(28.9%), ‘부하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챙겨주고 배려해 줄 때’(19.6%) 등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직장상사가 꼽는 ‘최고의 부하직원’으로는 ‘상사의 보좌역을 톡 소리 나게 해내는 직원’(36.6%) ‘업무를 야무지고 빈틈없이 처리하는 직원’(26.5%), ‘자신감과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진 직원’(19.9%), ‘최선을 다하는 직원’(11.4%) 순이었다.

이 통계를 보면 직장에서 ‘어른 노릇’ 하기가 결코 수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어른(장로)으로서 존경을 받으려면 야릇사람이 요구하는 실력과 인품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어른 노릇이란 여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일종의 구속이다. 그렇지만 큰 책상과 혼자 쓰는 방을 주는 것은 이유가 있다. 상사, 또는 어른의 이름에 합당한 처신을 하라는 뜻이다. 그걸 잘 못하면 거기서 나가야 한다. 냉정한 것이 세상의 이치여서 여기에는 승속의 차이가 없다.

정초기도

천 개의 해가 떠서 비추듯
 한없이 맑고 깨끗하신 부처님,
 새해가 열리는 이 아침에 고요히 합장하고,
 저희는 새 모습으로 발원합니다.

무한 공덕의 축복으로 태양은 떠오르고,
 빛나는 생명 지혜, 끝없는 자비 덕성,
 넘쳐나는 희망과 용기의 햇살이
 찬란히 펼쳐옵니다.

참 생명의 불성 공덕 드러내기 원하오며
 저의 원력 더 큰 지혜와 자비로 빛내주옵소서.
 부처님의 위신력과 가피 속에
 회구하는 착한 일들 원만하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불국사 (영문이름: **Buddhanara Temple**)에서는 불기 2551 년 1 월 1 일 (양력)에 기도를 입재해서 회향하는 4 월 10 일 까지 정해년 정초 백일기도를 봉행합니다.
 정해년 정초 백일 기도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미국 불국사나 한국 불국사 후원회로 연락 바랍니다.
 기도 동참금은 \$100.00 (한국은 10 만원) 입니다.

정해년 정초 백일 기도 동참하신 신도님들 (지면 관계상 주소는 생략): 신유생 목문석, 사천후인 목문균 영가, 기사생 박으뜸, 병인생 배진, 무진생 배수진, 임신생 배민철, 임진생 조남국, 병오생 노덕복 (박인주), 임오생 한 누미자 (Yumi Benton), 병신생 이은범 (Un Bom Grabski), 갑진생 김홍건, 병오생 도원 이찬혁, 무자생 김대원, 병술생 이주원 (단비), 을해생 무량화 김봉순, 정미생 문수연, 계축생 이금주, 병술생 유하연, 신해생 한애선, 임오생 정송자, 정묘생 방동현, 함평후인 이상명 영가, 갑자생 최효선, 을미생 김동희 (Stanly), 병오생 홍대선, 이종명, 기사생 정수빈, 정영환, 정유생 이용성, 정미생 황현식, 무술생 김정훈, 기해생 김창호, 경신생 윤찬웅, 병진생 이동엽, 정미생 장경순, 신유생 김미사, 을축생 김미경, 정유생 박래경, 신미생 박꽃별, 무인생 박셋별, 무술생 김종학, 계해생 김강인, 기사생 윤소영, 기축생 김헌웅, Woojin Robinson, 병신생 양순영, 정사생 김지은,

기도 명단이 누락되신 신도님들은 미국 불국사로 속히 연락 부탁드립니다.

법회소식 NEWS

- 정해년 돼지 해가 밝았습니다. 2007 년에도 2006 년과 마찬가지로 주위 분들이 부처님법에 의지해서 인생을 보람되게 살 수 있도록 불자님들 가까이 계신분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에도 전법 많이 합시다.
- 양력으로 2월 18일 셋째주 일요일은 한국 전통 명절인 음력 설입니다. 설날을 맞이하여 세알 법회를 2월 셋째주 일요일인 2월 18일 (음력 1월 1일)일 정기 법회시간에 갖습니다. 부처님전에 떡국 공양 및 세배도 올리고 점심 공양후에는 웃놀이도 있습니다. 물론 세배돈과 상품도 충분히 준비해 놓았으니 많은 신도님들이 참석하셔서 설날의 기분들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 눈발이 흠날리는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다섯번째 맞이하는 철야정진은 많은 신도님들이 참석해주셔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깨달음의 의미와 자신들의 불성을 찾아보았던 시간들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철야 정진에 동참해 주신 많은 불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성불하십시오.

- 1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227번 기미생 김기환, 228번 계해생 김준석, 348번 정미생 장경순, 349번 임신생 정금륜, 350번 갑술생 정병관, 382번 계사생 여재필, 383번 무술생 반야륜 이태인, 384번 을축생 여경원, 385번 임오생 김상헌, 386번 정해생 이안분, 387번 정사생 김지은, 388번 신해생 김재철, 389번 신해생 정연주, 391번 신해생 김재준, 392번 임자생 민소영, 393번 경진생 김진우, 394번 임오생 김수빈 .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2째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을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마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화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붓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정토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1월 한 평 불사 동참자: 을사생 박인주 (Angela Pak)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불국사 회장님이나 총무님, 또는 불국회 회장님 및 불국회 두분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